회고

투 스타의 추억 한 토막

문인간첩단 사건에 대한 기억

임헌영 _민족문제연구소 소장

1. 박정희와 같은 뱀띠의 다른 운명

분단 한국은 별들의 전쟁이래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진짜 별들과 5·16쿠데타를 비판하며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다가 투옥 당했던 국립 서대문대학(구 서울교도소, 현 서대문형무소소역사관)을 나온 전과자라는 별들의 전쟁 말이다. 교도소에서는 전과 1범을 별 하나, 둘은 투 스타로 불렀는데 원수급인 5성도 적잖으니 아마 별들의 숫자로 보면 국방부의 별보다는 법무부의 별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두 별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국방부의 별들은 한 번 달면 평생을 보장받는 신분적인 우대로 성우회란 막강한 단체가 있으나, 법무부의 별들은 천차만별인 데다 분파가 많다는 점이다. 군부독재란 바로 이런 다양한 별들을 과잉 배출하는, 별을 찍어내는 공장인 지라, 그래서 '총총 하늘에는 별들도 많고 국민들 가슴엔 근심만 많은' 세월이었다.

박정희와 내가 닮은 건 같은 뱀띠라는 건데, 세속적으로 널리 알려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있는 그의 사주는 정사년(丁巳年)출생으로 신해월(辛亥月)에다 경신일(庚申日) 무인시(戊寅時)에 태어난 것으로 소문 나 있다. 사주에서 흔히 말하듯이 인신사해(寅申巳亥)가 다 들어 있는 사맹격(四孟格)으로 고난을 헤치고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천운이라고들 하는데, 이것까지가 가짜라는 설도 파다하다. 그런데 내 사주에는 그 사맹 중 셋은 갖췄지만 '신'이 빠진 채라, 복권 숫자가 앞자리에서는 잘 맞아 돌아가다가 마지막이 틀어져 버린 격이라 천을귀인(天乙貴人)이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형충파해(刑沖破害)를 당한다는 풀이다. 결국 내가 발산하는 빛은 매우 강하나 구름이 끼어 있어 짱짱하게 빛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종 운명철학이나 점을 나는 별로 믿지 않지만 그냥 심심풀이로 해본 소리니 웃어넘기시기 바란다.

그러기에 믿거나 말거나지만, 별들로 따진다면 박정희나 나나 둘 다 투 스타로 동급이었다는 게 내 소견이다. 그가 5·16 때까지 달았던 별은 투 스타였고 그 뒤에 단 건 말짱 헛것이란 뜻이다. 전두환 역시 12·12반란 때는 투 스타였으나 그 뒤 제 멋대로 별을 더 달았으니 박정희의 판박이다. 세계의 모든 쿠데타는 다 권력욕에 불타는 갱단들의 난장판이라 일단 성공하고 나면 자신의 어깨에다 별의 수를 늘렸다. 그렇지 않고 쿠데타를 혁명으로 승화시킨 유일한 사례가 가말 압델 나세르로, 그는 거사 때의 대령 그대로 대통령이 되어 제3세계 국제정치사에 회오리를 일으켰다. 20세기 정치인 중 내가 좋아하는 순번에 들어가는 인물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쿠데타 후에 자기 손으로 갖다 붙이기 이전에는 같은 투 스타였기에 감히 투 스타였던 내가 당당히 그들과 맞장 뜰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농 삼아 지껄이지만 정작 그들의 별과 나의 별은 천문

학적으로 그 좌표가 완전히 달라 내 인생은 아무리 말로 수식을 해도 험난하기만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초라한 내 인생살이 전체를 다 털어놓을 수는 없기에 두 별들의 사연 중 첫 번째 별을 달게 된 경위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2. 빙고동 호텔

나에게 첫 스타를 달아준 곳은 '빙고동 호텔'이었고 때는 1974년 1월 긴급조치가 갓 발동된 하 수상하던 시절이었다. 이때 나와 함께 원 스타를 달았던 동기생으로는 작가 이호철, 정을병, 평론가 김우종과 장백일 5인조로, 세칭 '문인 간첩단 사건' '공범'들이다. 이 호텔의 호적명은 육군보안사령부로 군부통치 시절에 스타를 많이 배출했던 남산(중앙정보부)과 남영동(치안본부 대공분실)과 함께 3대 유명 재야 사관학교 중 하나였다. 이 트로이카 명문 중 빙고동 호텔은 일단 입교하기만 하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딘가에 탈이 난다고 할 정도로 성한 몸으로는 나오지 못하기로 악명이 자자했다.

이 호텔의 이력서는 찬연하고 그 명칭 또한 화류계 여성처럼 휘황찬란하다.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 산하에 설치됐던 정보과(1945.11)가 남조선국방경비대 정보과(1946.1), 육군본부 정보국 특별조사대(1948.11), 방첩대(1949.10)란 명칭을 거쳐 육군본부 직할 특무부대(特務部隊, CIC, 1950.10)로 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빙고호텔이 있던 자리에 동판이 있다.

빙고호텔 터 동판

분을 바꿨다. 그 동안 이 기구가 이승만 독재체제를 위하여 비판 세력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가는 구태여 여기서 읊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월혁명 후 육군 방첩부대로 개칭(1960.7)됐으나 5·16쿠데타 세력은 육군 보안사령부로 개칭(1968. 9), 이어 육군뿐이 아니라 해공군을 망라하여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1977.9), 시종 박정희 군사정권의 버팀목으로 중앙정보부와 충성 경쟁을 전개한 쌍두마차였다. 그러니 내가 입교했던 1974년은 아직도 '육군보안사령부' 시절이었다.

남산 3호 터널이나 반포대교가 없던 시절이라 서울역 -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좌회전해서 언덕길을 오르면 그 이태원 입구(지금의 녹사평역. 당시에는 콜트 장군 동상이 서 있었다), 그 부근에서 우회전하여 내리막길(지금의 반포대교 길, 초라한 도로)을 달리노라면 좌우가 다 미군 부대 철조망만 있었다. 길은 좁고 왕래하는 차는 거의 없었다. 지금의 크라운 호텔을 지나면 이내 반포대교로 이어지는데, 그 직전에 동작대교로 빠지는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이내 왼쪽으로 약간 경사진 곳에 삼엄한 검문대가 나타난다. 지

금은 민주기행 코스로 공개되어 있지만 그땐 그 장소 자체가 국가기밀이어서 그냥 '빙고동 호텔'이라고 불렀다.

그해 1974년은 정초부터 어수선했다. 1월 7일 '문인 61인 개헌지지 성명'(유신헌법 철폐)이 발표되자 재빠르게 이튿날 1·8긴급조치가 선포되더니, 10일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우리 집을 다녀갔고 이틀 후 또 방문, 그 뒤 다시 전화로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미 이호철은 연행 당했다는 소식이고, 함석헌, 천관우, 안병무, 문동환, 김동길, 법정, 계훈제 제씨를 연행·심문 중이며, 장준하, 백기완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했다는 흉흉한 때였다. 보안사에서 다녀갔다기에 일단 며칠간 피신했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곤 귀가했다가, 17일 밤에 아주 신사적으로 연행됐다. 그들은 항상 한 30분이면 끝난다고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쪽에서 조이면서 검은 지프 뒷좌석 가운데 나를 앉혔다. 차는 퇴계로의 모 호텔(현 세종호텔 맞은 편 쯤)에 들렀다. 으슥한 방으로 들어가자 마왕이라도 나올 듯한 어두컴컴하고 큰 방 입구에 책상과 걸상이 있는데 앉으라고 강박했다. 잠시 후 내가 태어난 뒤 처음 본 가장 덩치가 큰 중후한, 〈쿼바디스〉의 우루서스 같은 남성이 내 맞은 편 의자에 앉았다. 미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추남도 아닌 이 거대한 존재 앞에서 나는 왜 그리도 초라하게 느껴졌던 걸까.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혈통 속에서도 저런 골격의 인간이 있었던가를 의심케 하는 모양새다. 나는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냥 얼어붙었다. 반 나치 영화에서 레지스탕스들이 잡혀가면 첫 신에서 이 비슷한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줬던 기억이 떠올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1974년 3월2일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호철·임헌영·김우종·장병희·정을병 씨의 모습(오른쪽부터).

랐다. 우선 덩치를 보고 아무리 대담한 레지스탕스도 '야코'가 팍 죽어버린다. 뭐라 한 마디 묻자 마음에 안 들면 마치 기중기가 작은 바위를 들어 팽개치듯이 던져버리는 장면.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나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바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을 치켜뜨고는 꼬나보기에 나는 점점 더 얼어붙었다. 그렇게 아마 한 10분 정도 지나자 "데려 가!"라고 딱 한 마디를 천둥처럼 울리게 내뱉었다. 그러자 나를 연행해 왔던 장년 신사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 사병들이 "예" 하더니 나를 양쪽에서 옥죄며 방을 나섰다. 그 뒤를 몇이서 따르며 "본대로 간다, 본대로 간다" 하면서 신이 났다. 겁주기의 제1단계였고, 본대란 육군보안사령부 대공처 심문소, 속칭 '빙고동 호텔'(보안사 대공처)이었다.

1층 어느 방, 카펫이 안 깔린 맨바닥에다 벽은 머리를 쳐다 박아도 상처 나지 않도록 특수 장치를 했으며, 간이침대만 한 쪽에 있고, 화장실은 복도 밖에 있었다. 허리띠부터 소지품 전부를 압수하고, 의학박사가 간단한 건강진단(얼마나 때려도 괜찮은지를 검토) 후 인정심문이 끝나면 바로 고문이 시작된다.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식이다. 무조건 털어놓으라면서 매질이다. 뭘 털어 놓으라는지도 모른 채 비명 지르기에 혼비백산 할 즈음에야 의자에 앉으라더니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다 쓰라는 명령이다. 바로

라이프 스토리다. A4용지로 한 10매 정도로 얽어서 건네주면 그걸 대충 읽고는 엉터리라며 확 찢어버리고는 더 자세히 쓰라면서 그제서야 큰 인심이라도 쓰듯이 일본 여행 간 적 없느냐, 그걸 자세히 써 넣으라고 일러준다. 그 힌트를 받고나자 아, 바로 재일 동포들이 내는 월간 종합 교양지 『한양(漢陽)』을 트집 잡으려는구나 하고 뜬 구름을 잡고는 얼핏 통박을 굴려보니 그거라면 자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유신통치 독재체제라 한들 죄가 될 것 같지 않았다.

1962년에 창간한 이 잡지는 재일동포들이 주축으로 내는 것으로 그 동안 한국 내 유명 문사들(박종화, 백낙준, 백철, 이해랑, 모윤숙, 김동리, 조연현, 정비석, 조경희, 유주현 등)이 거의 망라된 필진이 참여했던데다 한국 보급 총책으로 박정희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숙한 구상 시인이 맡았던 터라 어떤 명분으로도 나 같은 피라미가 얽혀들 것 같지는 않았다. 국회도서관에도 비치될 정도로 전혀 불법이 아니었다. 내 라이프 스토리는 무려 20매로 늘어났으나 그들은 짜증을 내며 찢어 쓰레기통에 쳐 박으며, "이 새끼 안 되겠구먼. 군복으로 갈아 입혀!" 하더니 진짜 그런다. 매질의 예고편이었다. 가끔은 "이 새끼 엘리베이터 태워야 하나"라고도 해서 뭔 뜻인지 몰랐는데, 설명도 해준다.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땅 밑 몇 백 미터로 하강시켜 죽여 시신도 없애버린다는 위협이었다. 실제로 죽이진 않고 그냥 속임수로 땅 밑으로 깊이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어느 지점에서는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고문 담당자들이 몰려들어 매타작을 하고는 다시 집어넣어 내려가다 보면 또 문이 열려 다른 식의 고문을 행하는 것으로 빙고동 호텔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으로 자랑하는 메뉴였다. 실은 몇 백 미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의 조작으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사건 총책을 맡은 '강 전무'(한 사건 때마다 그 성과 직함이 바뀐다. 5공 때 민정당 국회의원 이상재)는 이 방 저 방 다니며 고문을 독려했다. 여러 고통 중 최고는 바닥에 꿇어앉힌 채 날카로운 구둣발을 옆 날로 세워 바로 무릎 위를 세차게 걷어차는 것인데, 이미 숙달된 그 발길질은 치명적이라 차라리 매를 맞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느끼게 할 정도로 며칠간 절뚝거렸다. 젊었을 땐 몰랐는데 늙어가면서 그 부분은 지금도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 시큰거린다. 뺨 때리기는 예사고 몸통 뻗기, 꿇어앉히기, 팬티 차림 등등은 그들에게 오락이었다. 고약한 자는 아예 발가벗겨 세워두곤 나체를 감상하는데 내 풀 죽은 남성 심볼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심문할 땐 어디선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아아아아' 하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저럴 수 있다'는 음향 효과를 배경에 깔고 심문을 진행하는 기법이었다. 5, 6명이 한 조가 되어 그중 한 명은 내 맞은 편 의자에 앉고, 나머지는 나를 병풍처럼 둘러싼 채 심문자의 말을 큰 소리로 반복하거나 윽박지르고 나머지는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군!"이라든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라는 추임새를 수시로 넣어서 단 한 순간도 내가 말을 할 틈새를 주지 않고 " …… 했지!?"라고 다그치면 "예"란 대답만 나오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한참동안 매타작을 하고는 지금까지 말했던 그대로 적으라며 백지와 볼펜을 주고는 사라진 자리에 대학생 징집자들로 이뤄진 사병들이 감시하는 가운데서 나는 손목이 시릴 정도로 '대하소설'(내 자서전) 집필을 몇 번이고 고쳐 썼다. 심문과 고문이 거듭

될수록 점점 길어져 100매 전후를 넘나들었다.

요지는 '북괴의 간첩'들이 내는 잡지인 『한양』지에 글을 써서 원고료를 받았고, 일본 여행 중 그 잡지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부터 대접과 선물을 받았으며, 그들에게 국가기밀(원고료가 너무 싸다, 잡지마다 고료 액수가 다르다, 한국 문인들의 근황 등등)을 누설했으니 우리도 '간첩'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들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가정 아래서 엮어낸 데다 그들이 간첩임을 알고서도 우리가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리였다. 세상에! '나 간첩이요'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으며, 그런 말을 않는데도 그들이 간첩임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 보니 개헌 서명을 한 이호철과 나는 간첩이고 나머지 셋은 그냥 반공법 위반으로 휘몰아 갔다.

징집 당해온 근무병들은 옆에서 거의 지켜봤기에 요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망해라!"라고 소리 지르며 노골적으로 나를 동정하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해 줄 테니 부탁하라고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다. 고마운 한편 이 젊은 것들도 앞잡이가 되었나 하는 의구심이 솟아 뜨악했는데, 며칠을 지내면서 보니 그게 진심이었다. 어느 수사관은 지나다가 들러 천장의 텔레비전과 녹음장치를 가리키며 조심하란 몸짓과 함께 종이에다 "반공법, 문제가 많다"고 써서 보여주곤 잘게 종이를 찢어 휴지통에 버리곤 했다. 이쯤 되니 곧 풀려나겠구나 낙관했는데 며칠 사이에 슬그머니 분위기가 얼어붙더니 그간 정들었던 사법경찰관이 바뀌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3. 분단 한국과 서독, 그리고 타이완

새로 바뀐 수사관이 "젊은 사람이 매로 다스렸으면 이제 늙은이가 슬슬 엮어서 징역을 보내야지"라며 본격적인 서류 작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뭔가 뜻대로 안되자 사법경찰관이 또 바뀌어 무척 경직된 분위기로 표변하기에 아하, 기어이 징역을 보낼 작정이구나 싶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각료회의에서 문공부장관(윤주영, 문공부는 당시의 명칭)이 자신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군 관련 기관에서 문인들을 연행해 간 사실을 문제시하여 풀릴 듯 했지만 보안사는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확실한 범죄로 몰아갔으며, 여기에다 예술단체 모 간부(시인)가 은근히 이를 지지해 줬고, 정치권 역시 민주화운동을 억압코자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던 터라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모 유명 여류문인이 육영수에게 은근히 이 사건의 부당성을 진언하자 도리어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반론만 강조했다는 뒷이야기도 있다. 보안사는 이 심문 및 재판 기간 중 가족들의 대사회적인 석방 촉구 활동을 막고자 다섯 구속자의 아내를 다방에 불러 모아 계속 발을 묶어두곤 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이제 고문자들이나 심문자들과도 말문이 터져서 온갖 이야기를 나누는 처지가 되었다. 필시 그들 자신도 이 간첩 조작이 무리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심문관 중 한 무표정한 분은 월남한 진짜 간첩 출신으로 눈빛이 매섭고 과묵하면서도 어딘가 공포가 느껴졌는데, 한쪽 손 무지가 뭉그러져 있었다. 나중 알게 된 바로는 체포당해 고문을 받다

가 그렇게 된 것이라 했다.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왠지 연민의 정이 갔다. 어느 눈이 쌓인 날, 한 호의적인 심문관이 나에게 답답하니 잠시 시원한 바람이나 쏘이라며 사병에게 건물 옆 뜰로 산책을 시켜주게 했다. 마침 거기에 바로 그 월남 간첩이 우두망찰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하염없이 허공으로 날리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 허망함!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의 착잡한 심경과 뇌리의 흐름에는 어떤 회한이 서려 있을까. 북녘의 고향과 부모와 어렸을 적의 동무들, 남녘에 와서 얻게 된 처자식들, 자신이 믿었던 '인민공화국의 이상'과 남녘의 풍요로운 '미제의 식민지로서의 미끼인 달콤한 물질적인 유혹의 삶'의 괴리가 주는 번민, 민족, 역사, 진리, 정의, 그리고 국가, 대체 그런 게 뭐란 말인가.

그는 나에게 가끔씩 "이 사람이!"라는 협박성 말을 내뱉으며 눈을 부라렸지만 눈 덮인 땅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그 순간을 보고서 나보다 더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나 나나 다 강대국에 빌붙어 자기 국민을 괴롭히는 독재세력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동병상련 같은 것이었다. 이런 나의 속셈을 그도 읽었는지 그 뒤부터 나를 보는 그의 시선도 약간 달라진 듯 했다. 기계론적으로 적용하는 잣대인 전향자 운운이나, 왜 살아남아 그런 반동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치욕스럽게 지내느냐, 어서 자살이라도 해라, 라는 식의 당위론적인 테제만이 정당할까. 물론 이런 내 생각은 나중 두 번째 별을 달고 징역을 살았던 대구 교도소의 비전향 장기수들의 고통 앞에서는 여지없이 허물어졌지만 적어도 빙고동 호텔의 눈 덮인 뜰에서만은 잠시 보살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럼 내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홀연히 엔도 슈사쿠의 가톨릭 순교를 다룬 20세기 최고의 걸작『침묵』(1966)이 떠올랐다. 원제는『양지의 향기(日向の匂い)』였으나 편집자의 제안으로『침묵』이 되었다. 일본에서 기독교 탄압의 잔혹성은 가히 세계 최악이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도에게 자행했던 고문의 야만성은 일본에서는 양반이었다. 야마 하이리 고문(山入拷問)은 화산인 운젠(雲仙) 온천에 데려 가 뜨거운 물 퍼붓기, 뜨거운 바위 위에 세워두기, 입 막고 열탕에 처박기 등이었고, 아나츠리(穴吊り)는 볏짚으로 몸을 꽁꽁 묶어 거꾸로 매달아 머리를 땅 구덩이에다 넣어 귀에다 바늘 구멍만한 상처를 내어 출혈하도록 해서 며칠 동안 그 고통을 느끼도록 했다. 파도가 들이치는 해변에다 기둥에 매달아 그대로 숨이 멎을 때까지 두기도 했다. 그 고통을 못 이겨 배교를 하겠다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상을 새긴 동판을 더러운 발로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후미에(踏絵)를 시켰다. 일본 농부들은 그런 고통의 고문 중에 죽어갔고 살아남자면 후미에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감행해야만 했다.

서양 선교사들은 이런 고문은 이겨낼 수 있었으나 자신을 따랐던 신자 농부들을 바로 눈앞에서 살해하는 걸 차마 견딜 수 없었다. 버젓이 후미에를 했건만 하나씩 죽이기에 항의하자 관리들은 이 농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선교사인 당신이 직접 후미에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윽박질렀다. 차라리 자신을 얼른 죽여 달라고 했으나 그럴 수 없다, 반드시 후미에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었다. 자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신도들의 생명을 구하자면 결국 배교할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 그런 고뇌

의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있다. 바로 그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자문 앞에서 그는 예수의 말을 듣는다.

> "밟아도 좋다. 네 앞의 그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이런 환청도 들렸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 /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누가 말했던가."

이래서 주인공 로드리고는 후미에를 해서 농부들을 살려냈고 자신도 생명을 부지했다. 그러나 섬나라 관료들의 잔혹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로드리고로 하여금 순교로 죽은 한 농민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하여, 일본을 위해 서양 문물을 번역, 소개하도록 강박했다. 그의 사생활 일체는 감시하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떤 것도 가까이에 두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다가 후배 선교사들이 오면 그들을 배교시키도록 설득 작전에 나섰다.

기독교 신자도 아닌 내가 이 소설을 중시한 것은 인간의 신념과 현실적인 괴리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병립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인간 존재의 근본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이런 잔혹성을 바탕 삼아 제국주의로 중무장하여 우리나라를 침탈했다. 식민지 시기에 독립 운동가들에게 가했던 잔혹성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나는 느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에게 가했던 그들의 악랄한 전향 강요는 이 기독교 배교시키기와 너무나 닮았다. 이걸 그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전수받은 게 8·15 이후 친일세력들이 지배했던 권력의 대행자였던 정보기관이었음을 연상하는 데는 통박을 그리 많이 굴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전향자의 운명은 아마 두꺼운 책으로도 모자랄 만큼 한국 근현대사의 비화로 흥미진진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70년대에 민주화운동권에 투신했던 왕년의 열렬한 투사 출신들 중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인사들의 행적만 추적해도 어디 소설『침묵』에 그칠손가.

북에서 월남해 오면 반드시 북한 비난 대중 강연에 동원하여 반공 캠페인을 벌이기 일쑤다. 꼭 그 길 밖에 없을까? 아니다. 동독의 작가 우베 욘존은 작품 출간이 불가능한 데다 직장도 보장 못 받자 서독으로 갔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끝내 '망명'이란 단어를 피하고 "10년 동안만 사용했던 국적을 반환하고 서베를린 당해지 관리의 허가를 얻어 이사"했다고 주장했다.

『순애보』의 작가 박계주는 장편『여수(旅愁)』(1961)에서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온 피난민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자상하게 소개해준다. 위생검사 후 심문 내용은 성명과 연령 및 가족, 탈출하게 된 동기, 동독에서의 직업과 생활상태, 희망하는 직업과 살고 싶은 지역 등으로 5~10분이면 끝난다는 것이었다. 바로 수용소로 보내져 비행기 사정과 직장 알선 때문에 7~8일간만 기다리면 이주 절차가 완료된다. 스파이가 많을 텐데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서독은 이미 동독의 문제인물 리스트를 장악하고 있기에 문제없으며, 설사 놓치더라도 언제나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첩이나 국가 변란죄의 최고형은 5년이라며 서독 검사는 주인공 춘우에게 반문했다.

"귀국에서는 얼맙니까."

"사형입니다."

이번에는 검찰 간부가 깜짝 놀랐다.

"왜 사형합니까."

"국가를 전복시키는 건데 그에서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네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수를 감옥에서 그냥 가두어 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6년간 사랑으로서 감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박계주, 『여수』)

중국도 마찬가지다. 타이완 출신 여류작가 천뤄시(陳若曦)는 미국 유학 중 캐나다로 이주했다가 베이징으로 가서(1966) 잘 살다가 다시 타이완(1973)으로 돌아왔다. 관계 당국은 그녀의 '망명'을 환영했으나 이 작가는 끝내 그 단어를 피하며, 자신은 '반공 의거'가 아닌 '중국인의 증언자'라고 주장했다.

차이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일본은 여행을 다녀오기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고, 특히 유학생에게는 더욱 위태로웠다. 조총련이 워낙 센 지역이라 미처 알지도 못 한 채 걸려들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장학금제도가 조총련계에 많아서 함부로 받으면 바로 '간첩'으로 일생을 망치기도 했다. 그런데 타이완은 한국과 달랐다. 그들은 중국계 장학금을 받으면 관계 기관이 소환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더 이상 말려들지만 말고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빙고동 호텔에 대해서는 김병진의 『보안사』(소나무, 1988)가 실감나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그 전모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재일동포 유학생으로 보안사에 연행, 고문 유경험자로 거기서 2년간 근무 후 사직코 이 책을 통해 그 사실을 폭로했다. 이곳이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 간첩 사건을 주로 다룬 곳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서승-서준식 형제들이다.

4. 국립 서대문 대학

빙고동 호텔에서 원 스타가 된 우리 다섯 별들은 그 계급에 걸맞게 따로따로 지프차로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1월 25일 서대문 구치소로 이송, 수감 당했다. 이 날은 내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추억이 겹쳐져 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편안한 고향의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 두고 상경한 날(1961.1.25)이자, 맏아들의 생일(1972)이고, 마지막으로 보안사 대공분실에서 서대문 구치소로 넘어간 날(1974)이 추가되었다.

이 대학 면접은 까다로웠다. 이미 밤이 저물어 각 경찰서에서 보낸 일반수들은 다 입방해 버린 뒤여서 덩그런 넓은 방에는 몇몇 교도관들이 난로 가에서 한담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대뜸 일반 사범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직업을 묻기에 대학 강의도 하고 글도 쓴다니까 무슨 과 교수냐기에 국문과랬더니 "보나마나 민족문화예술이 어떻고 하다가 들어왔겠군요!" 하고는 "안 됐구만요. 몸이나 조심하시오. 여기선 건강이 제일이니 ……"라고 하자 요시찰 담당 교도관이 나타나 "잡담 하지 마시오! 따라오시오!"라고 윽박질렀다.

널찍한 방에 죄수는 나 혼자였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나를 홀랑 벗겨 옷과 소지품 일체를 압수해 버리더니 귓구멍, 입구멍, 똥구멍 등등 구멍이란 구멍은 다 들여다보며 거기 뭘 숨기지 않았나 검사하고는 푸른 수의를 던져 주었다. 플라스틱제 밥그릇과 국그릇, 숟가락에다 대나무 젓가락, 검정 고무신, 수인 번호표(152번)를 주더니 따라 오라며 감방으로 향했다. 닫힌 철문을 몇 갠가 열고는 긴 복도를 지나 멈췄다. 문 위에 '5사 하 8방'이란 큰 글자가 보였다. 담당 교도관이 문을 열어주고는 내가 들어서기가 무섭게 꽝 소리 나게 잠가 버렸다.

원래 독방이 아니라 여럿을 함께 수감하는 곳이라 좁진 않았다. 변기통이 방 안에 있는 구조가 아니라 형식적인 문을 열고 별도로 화장실이 있었다. 나중 알고 보니 제1관구는 다 이랬으나, 다른 관구(전체가 5관구에 여자막사로 구성)에는 변기통이 방 안에 버젓이 놓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찬 시멘트 위에 마루를 깔아 거기에 가마니 거적을 덮어 바닥을 만들었다. 회벽에는 온갖 낙서들로 그득했고, 천정은 아득하게 높은 데다 창문은 유리 대신 찢어진 비닐이 엉성하게 붙어 있어 겨울바람에 펄럭이면서 동장군의 위력을 그대로 드러냈다. 원래는 유리창이었으나 누군가가 그걸 깨트려 목을 찔러 자살한 뒤부터 비닐로 바꿨다고 했다. 히터도 있었으나 그 흔적조차 없다. 수의에는 허리띠가 없었다. 누군가가 허리띠로 목을 졸라 자살한 뒤부터 없앴다고 한다. 이불은 꼬질꼬질한 솜뭉치들이 한쪽으로 내 몰린 데다 축축하며 얇았다. 그 추위에도 이(虱)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전신을 공격해 댔다.

빙고동 호텔에서 워낙 시달리면서 제대로 잠 한숨 못 잔 터라 그 지긋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지긋함에서 풀려난 통쾌함에 비록 구차하지만 감방이 너무나 좋았다. 누워서 출입문을 쳐다보니 그 위에 'NATIONAL5下HOTEL'이라고 반듯한 정자로 쓰여 있었다. 그래, 맘먹기 달렸지, 이 국립호텔에서 모처럼 단잠을 실컷 잘 수 있었다. 차르 치하의 러시아 혁명가들이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는 그 순간에 고통은 끝난다는 『옥중기』 구절이 생각났다. 그만큼 수사기관은 지긋지긋하다.

이튿날 새벽,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니 복도로 수감자들이 수시로 우우 몰려 어디론가 오갔다. 알고 보니 세면 시간이라 방마다 문을 열어줘서 세면장엘 들락거렸다. 누가 "형, 왜 여기 왔어?"라기에 보니 이재오였다. 그는 얼른 빠르게 "형, 내가 필요한 것 다 보낼 테니 걱정 마세요" 하고는, 자기는 내 방과 멀리 떨어져 있고, 바로 내 옆방에 노동운동 연구가이자 통일운동가인 김낙중의 공범 노중선(현 『통일뉴스』 상임고문)이 있으니 뭐든 필요하면 말하라고 소개했다.

이재오는 당시 일본 유학생 간노 히로미(당시 서울대 유학 중. 나중 도쿄외대 교수)가 북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철학사전』을 들여온 게 들켜 투옥 중이었다.

김낙중 사건은 요란했다. 그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총간사였다. 연구소 소장은 김윤환 교수, 실장은 권두영 박사, 노중선은 간사였다.

노중선은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연루되어 혹독하게 당했다. 최근 이 사건의 희생자였던 권재혁의 억울한 처형을 다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가 1969년 조작간첩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11.4) 불과 7살이었던 그의 영애 탤런트 권재희가 현대사

학자이자 민주통일 연구자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와 결혼한 사건까지 겹쳐 이 사건의 허위성이 낱낱이 드러났다.

해방전략당 사건은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노정훈, 김봉규, 박점출, 조현창, 김병권, 오시황, 나경일, 김판홍, 노중선 등 13명이 연루됐는데, 중앙정보부가 맡았다. 그러니 내가 1974년 노중선을 만났을 때는 고려대 간첩단 사건이란 죄명으로 두 번째로 고생 중이었다. 내가 먼저 석방된 후에 그는 모친상을 당했는데, 뒤이어 출소한 이재오와 함께 공주 오지 마을을 한밤중까지 헤매다가 간신히 찾아가 아들 대신 조의를 표했던 일이 엊그제 같다.

이렇게 국립호텔에서 며칠을 지내자 바로 발가락부터 동상에 걸렸다. 그걸 바늘로 찔러 검붉은 피를 짜내자 너무나 시원했지만, 지금도 그 발가락은 조금만 방심하면 무좀에 걸리곤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근엄한 대 귀족답게 카타르시스를 너무나 고상하게 언급하여 문학청년 시절에 이를 이해하려고 무던히도 끙끙댄 적이 있었다.

>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며, 쾌적한 장식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되 각종의 장식은 작품의 상이한 제 부분에 따로따로 삽입된다.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1991. 47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그 카타르시스가 생리적인 정화(purgation)와 종교적인 정화(Purification)를 포괄하는 것인지 어떤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어떤 체험에서 이런 이론을 도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비극은 전혀 아리스토텔레스적이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비극론을 보면 그는 아무래도 별로 비극적인 체험을 못한 것 같다.

나에게 비극은 진지하지도, 완결된 행동의 모방으로도, 쾌적한 장식의 언어로도 설명될 수 없는 지저분한 잡문 형식으로 다가왔다. 귀족이 될 수 없는 인간에겐 비극조차도 삼류 신파처럼 다가서는가. 나에게는 차라리 헤겔적인 비극이 더 살갑게 느껴졌다.

> …… 남편, 부모, 자녀, 형제 같은 가족에 대한 사랑, 국가적인 삶, 시민들의 애국심, 지배자의 의지, 더 나아가 교회에 나가면서도 신앙행위는 거부한 채 경건함만 지니고 있거나, 행동하더라도 선악을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신앙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반대로 실제적인 관심사나 상황에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진행된다.(헤겔, 두행숙 옮김, 『헤겔 미학』, 3권, 나남출판, 1998. 682쪽)

지극히 시민적이고 현실적인 이 비극의 범주. 특히 "지배자의 의지"란 단어에 초점이 간다. 한 인간, 독재자의 의지에 따라 역사는 얼마나 많은 범죄와 불행이 저질러졌던가.

서울의 우울을 상징했던 현저동 101번지는 조선시대에 전옥서(典獄署)였다가 감옥서(監獄署)로 바뀐(1895) 뒤, 일제에 의하여 사실상 법 집행권을 약탈(1906, 조선통감부 설치)당한 후에 경성감옥(京城監獄)이란 명칭 아래 독립

운동가들을 수감시킬 목적으로 지어진 곳(1908.10.21. 개소)이다. 민족사적 수난의 상징인 경성감옥은 서대문형무소(1923), 경성형무소(1946), 서울형무소(1950), 서울교도소(1961), 서울구치소(1967)로 첩보원처럼 변성명을 거듭하다가 1987년 11월 15일 의왕으로 이전함으로써 대부분의 건물이 허물어지고 지금은 우아하게 서대문형무소역사관(1998.11.5 개관)이란 명칭으로 몇 동만 남아 있다. 한반도 형무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이 설움과 신음과 한이 서린, 그래서 저주와 축복이 공존하는 현저동 101번지.

파놉티콘의 감시체제에 맞춰 지은 이 옥사(獄舍)는 2층인데, 각 층마다 복도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감방을 마주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위층 복도 한가운데에서 보면 아래층 까지 다 감시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파놉티콘 시설로는 격벽장(隔壁場)식 운동장 구조가 있다. 원형 운동장의 한 가운데에다 감시대를 설치해 두고는 방사형으로 여러 칸을 나눠 담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감시자 혼자서 운동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이 시설을 원형 그대로 보관했다면 실로 세계적인 명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목록에 오르고도 남을 아까운 유적이었건만 이를 허물어버린 군부독재나, 그런 야만적인 조치를 막지 못한 민주 세력의 역량을 생각하면 마냥 울화통이 치민다. 지금도 그 일대 독립공원엘 갈 때마다 입구 보도에다 이 시설을 훼손한 자들의 동판이라도 깔아두고 짓밟고 지나가도록 했으면 하는 울적한 심정이다.

방마다 사상, 정치, 경제 사범(事犯)부터 국민재산 이동관리법 위반(절, 강도 등 모든 도둑 통칭) 혹은 뚜룩재비(도둑질 통칭), 접시돌리기(사기범), 뽕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이(마약사범), 물총강도(간통범) 등으로 언제나 만원이었다. 가장 다양한 뚜룩재비에는 퍽치기(노상강도), 월담(주거 침입 절강도), 아리랑치기(취한들의 주머니 털기), 쓰리(소매치기, 일어 すり, 掏摸 掏児에서 유래) 등등으로 전공분야가 나눠지는데, 손동작만으로 그 장르를 표시하기 일쑤다. 예를 들면 소매치기는 엄지와 식지 끝으로 무슨 물건을 잡아 뽑듯이 하고, 월담은 왼손바닥에다 오른손바닥을 갖다 붙이고는 오른손가락을 밑으로 꺾어 담을 넘어가는 시늉으로 나타낸다.

현저동 101번지에서의 만고불변의 유일신은 "오리발이 청와대 빽 보다 낫다"는 범죄 부인 술책이다. 그래서 어떤 고귀한 신분이라도 여기서는 다 접시돌리기에 익숙해져 오리발을 여럿 지니게 된다.

1916년 경 세워졌다는 사형 집행장의 입구에는 미루나무가 이젠 역사의 증언을 다 했다는 듯이 한유를 즐기고 있다. 수명이 60~80년인데, 사형장과 비슷한 시기에 심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니 이미 천수를 한참 넘겼다. 이 형장에서 사라져 간 생령들은 얼추 2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들은 예외 없이 형장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미루나무를 쳐다보곤 하늘과 땅을 한 번씩 바라본다고 한다. 그리고는 사형장에서 관리들에게 본인 여부 획인 절차와 유언, 종교인이면 간략한 약식 절차를 마치고는 바로 교수대에 목을 맡겼을 터이다.

교수대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실, 거기서 담가에 실려 밖으로 나가면 바로 시구문(屍軀門, 시신을 내보내는 통로)의 입구다. 그 터널 같은 지하도로 형무소 담장을 넘어 샛길로 나가면 이내 공동묘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져버렸다. 거기에 18개월간 묻혔다가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화장해

버렸다. 이곳을 찾으시면 잊지 말고 그 형장을 찬찬히 보시노라면 인생관이 달라질 것이다.

아니, 지금 내가 이 국립호텔을 낙원인 듯이 그릴 처지인가. 내 육신의 고통보다 밖의 식구들이 당할 괴로움이 오히려 더 가슴을 후볐다. 빈 방, 아무 것도 없었다. 읽을 생각도 없었지만 읽을거리도 주지 않았다. 면회도 도서 차입도 접견도 일체 금지된 밀봉 상태였다. '인권'이란 단어가 맥을 못 추던 유신독재 시절 아닌가.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읽었던 많은 책들, 아름다웠던 장면과 슬픈 장면을 다 떠올렸으나 그리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 한 분이 내 방을 들여다보더니 "당신, 평양에서 왔소?"라고 홍두깨 같은 화두를 던졌다. 그때는 반공법 위반자의 문 위에는 빨간 딱지를 붙여서 일반수와 엄격히 구분, 차단했다. 나는 얼른 "예, 평양에서 왔시다"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휑하니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하려고 구치소를 찾았을 목사가 정작 길 잃은 목동을 팽개치다니 순 돌팔이 아닌가. 소내 방송은 유신과 박정희를 찬양하며 새마을 노래들을 연신 틀어댔다.

아직은 긴장이 끝난 건 아니었다. 이제 검찰 심문이 남아 있었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요약하는 게 당시 검찰 풍조였던 터라 너무나 긴장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내 그 반응이 나타났다. 쉽게 죄명을 뒤집어씌울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위협이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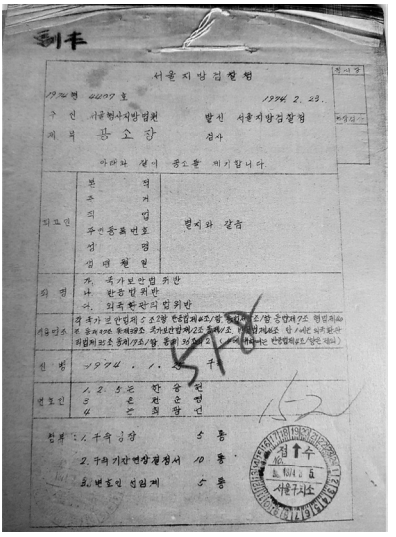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5. 검찰, 그리고 변호사

검찰은 나를 검사실로 소환 않고 직접 구치소로 찾아와 심문을 진행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아주 막나갔다. '이 새끼 거짓말 하면 그냥 안 둬'라더니 누가 뭐 일본 가서 오입한 이야기나 듣자고 부른 줄 아나 하기에 나는 대뜸 그런 건 하지도 않았다 하자, "이 새끼, 그러니까 빨갱이잖아!" 이런 식이었다.

그는 혼잣말로 '다른 놈보다 좀 뻣뻣한데', 하더니 제 뜻대로 안 되자 교도관에게 '데리고 들어가'라고 해서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중에 단잠을 깨워 구치소 보안과장실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낯익은 보안사 요원들이 대기 중이었다. 그들은 나를 빙 둘러싸고서 왜 검찰 심문에서 순순히 말하지 않았느냐며 팔다리 하나 부러지고 싶으냐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정 말 안 들으면 다시 보안사로 데려 가겠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밤에 정말로 그곳으로 다시 연행해 갔다. 그 심야의 드라이브 — 통금이 있던 시절이라 텅 빈 거리를 질주해 가서 온갖 위협에 시달리다가 다시 구치소로 되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은 심장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나를 맡았던 정든 수사관은 남의 귀를 피하여 슬쩍 귀띔했다. "잘했어! 그러나 1심 받을 생각은 해야지. 일단 억지로라도 타라는 열차를 타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생각을 해야지,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리면 다쳐요. 깡그리 부정하면 빙고동으로 다시 가서 병신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병인지 약인지 모를 충고를 해줬다.

인권이니 접견권, 변호권 같은 단어도 없던 시절이라 독방에 갇힌 채



검찰의 공소장 표지.

책 한 권도 볼 수 없는데다 가족은 물론이고 변호사 접견도 불가능해서 오히려 밖에서 얼마나 염려할까가 더 큰 걱정이었다. 그나마 나는 노중선과 이재오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 나는 다시 호출 당했다. 보안사 요원들이 나를 차에 태워 다시 그리로 데려갔다. 순간, 나는 완전히 얼어버렸다. '아, 이번엔 크게 다치겠구나'라는 혼잣말이 절로 나왔다. 통금이 있던 시절이라 정적 속의 야심한 도심 드라이브는 즐길 만했을 테지만 그저 가슴만 벌렁거렸다. 서대문-서울역-삼각지-이태원- 빙고호텔, 그중 2층의 널찍한 방에다 푹신한 침대도 있는 특실이었다. 공작과장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모 대령이 등장, 귤과 바나나와 사과를 정갈하게 담은 접시를 갖다 놓고는 아주 신사적으로 권하며 나를 슬슬 구슬렸다. 한 마디로 나라를 위해 죄를 뒤집어쓰라는 것이다. 옆방에서는 단말마의 신음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한참을 시달리다가 다시 감방으로 돌아오자 착잡했다.

이 삼엄한 시대, 변호사조차 검사와 수사기관의 눈치를 봐야 했던 시절에 구치소 소장실 옆 부속실에서 검취를 당하고 있던 방으로 불쑥 예고도 없이 용감하게 한승헌(전 감사원장) 변호사가 들이 닥치자 나보다 정작 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놀란 건 검사였다.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 "라면서 어쩔 수 없었던지 곤혹스러워 하는 판에 뒤이어 권순영 변호사도 들어섰다. 두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 검사실로 막무가내로 들이 닥칠 예정이었는데, 검사가 구치소로 출장 나갔다기에 달려온 것이었다. 한 변호사는 워낙 고명하기에 구태여 여기서 소개할 필요도 없겠고, 권 변호사는 1955년 전후 한국판 카사노바로 유명했던 박인수에게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라며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였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해병 헌병 대위였던 박인수는 약혼녀가 배신하고 어느 대령과 결혼해 버리자 실의에 빠져 군기를 위반, 불명예제대 후 현역으로 행세하며 1년여 동안 70여 여인들(미용사 하나만 처녀였다고 증언)과 놀아난 1950년대의 댄스 붐 시절의 첫 제비족이었다. 고관이나 상류층 출신 여성들은 당하고도 입을 다물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터지고도 쉬쉬해서 더욱 화재가 되자 권순영 판사는 "E여대가 박인수의 처가"라느니, 장가가려면 '박인수 리스트'를 미리 점검하라는 등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1심에서 풀려난 박인수는 여론에 밀려 항소심(김세완, 김홍섭, 임항준 판사)에서는 "아무리 혼란한 사회상황 아래서라 해도 그 여성들의 정조가 법의 보호권 밖에 있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1년 6월 실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1년 만에 출옥했다.

권 변호사는 1962년에 "고의적인 살인범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윤형중 신부의 글 「처형대의 진실」에 대하여 현직 판사(서울지법 소년부 지원장)로서 반론을 펴서 사형폐지론의 선두에 서기도 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대뜸 나를 향해 "어디 팔다리는 성합니까?"라고 물어

오랜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밖에서는 혹 병신 된 게 아니냐고들 걱정한다고 전해줬다. 나는 한 변호사에게 내 건강을 입증하고자 일어나 걸으며 팔 다리도 마구 흔들자 적이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검찰로 소환당해 취조 중에 어느 법조 출입 기자가 불쑥 등장해 문인간첩단 사건을 거론하며 슬며시 "기자촌 우리 옆집 분도 있다던데 ……" 라고 해서 내가 얼른 "바로 납니다"고 말을 붙였다. 동아일보의 김재곤 기자였다. 나를 관찰하고자 일부러 탐색하러 온 것이었다. 출소해서 들으니 그는 얼른 자기 집으로 연락해서 내가 병신 안 되고 잘 있다고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뒤부터 검사의 자세가 영판 달라지기 시작했다. 담배도 권하며, 자기 검사 생활 중 "이런 거지같은 간첩 사건은 처음"이라며, 아니, "진짜 거지 간첩을 잡기도 했다"고도 했다. 하도 사건이 이상해서 검찰은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던 보안사의 공작일지까지 보여 달라고도 했다는 귀띔도 했다. 그러더니 "혹시 엘리베이터라도 탔나?"라기에 안 탔다니까 "그럼 아닌 걸 아니라고 했나?"라기에 그랬다니까 그럼 왜 조서가 이러냐는 등등의 선문답이 오가기도 했다.

감방 안에도 소식은 스며든다. 신문은 우리에게 '문인간첩단'으로 대서특필했다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개헌 서명을 한 이호철과 나는 '간첩'이고, 김우종, 정을병, 장백일은 반공법 위반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검찰이 보안사에서 뒤집어씌운 무리한 죄명인 '간첩'죄를 떼어내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만 기소하기로 굳혔다는 점이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이것조차 말이 안 되는 완전무결한 무죄여야 하지만 이나마도 대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한 용기였지 않았나 싶다. 나에게 들씌워진 죄명은 국가보안법 5조2항(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조(자격 정지 병행), 12조(금품 수수액 또는 보수의 몰수 및 압수물품의 국고 귀속), 반공법 4조1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5조1항(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죄), 7조(편의 제공) 등이었다. 이렇게 법조문을 들고 보면 어머어마한 죄라도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한양』지에 다른 문인들처럼 글 써주고 원고료 받았으며, 일본 여행 중 식사와 술 몇 번 얻어먹고, 길 안내 몇 번 받은 것이 전부였다. 굳이 따진다면 박 정권 비판 대화가 오간 게 괘씸죄라면 될까.

6. 고통 속의 유미주의적 체험

한참을 지난 어느 날 한 인심 좋은 교도관이 갑갑할 터이니 이거라도 하면서 넣어준 게 『신약성서』였다. 학창 시절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려고 읽었던 터지만 워낙 눈이 궁하던 차라 어느 대목을 보면 마음이 평온하게 될까 궁리하다가 예수의 처형 장면을 찾아보기로 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론을 실험해 보려는 속셈이었다. 그 고상한 이론을 한국의 한 평론가가 겨울 감방에서 천박하게 생존 전략으로 써먹어 보자는 것이다. 나보다 더 비참한 사실(비극)을 보노라면 나는 위로받을

것인즉, 그건 연민과 공포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뭔가가 있겠지. 그래, 예수의 죽음 장면을 찾아보기로 했다.

기억을 되살려 당장 「마테복음」부터 찾아나갔다.

>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마태복음」 27: 28-36).

>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마가복음」 15: 17-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만 그 묘사력에서 이 둘에 뒤진다. 세계 4대 성인 중 불행한 최후를 마친 건 소크라테스와 예수인데, 일찍이 나에게 더 큰 감동을 준 건 전자였는데, 이유는 어떤 문학작품에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비극으로 묘사한 플라톤의 『파이돈』 때문이었다.

그런데 추운 겨울 감방에서 카타르시스를 유발하려는 불순한 동기로 읽는 성서에서는 도무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신앙인이 아니어선지 아니면 그 묘사가 너무 고차원적이라 내 뇌세포가 못 미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데는 실패하여 황망해졌다.

검찰 심문이 끝나고 기소되면서 책 차입이 가능해져 이러저러한 독서편력에 몰두했지만 역시 카타르시스를 야기 시킬 만한 비극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는 비참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하찮은 것일까. 대체 문학이란 이렇게 무력한가란 자책이 나를 때렸다. 온갖 비극들이 너무나 한심한 코미디 같았다. 이에 비하여 『주역』이나 사마천의 『사기』 같은 육중한 책이 오히려 나를 사로잡고는 당장의 감각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역사와 인생과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투지를 일깨워 주었다. 차라리 이런 것과 사회과학 관련 저서들을 통해 카타르시스 되었다는 게 내 솔직한 고백이다. 혹 내가 너무 사회과학파인 탓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카타르시스까지는 가지 않아도 좋다. 내 정신을 홀랑 빠져들게 할 작품은 없을까 찾던 중 만난 게 엉뚱하게도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유미주의 소설이었다. 일본 최고의 유미주의자인 다니자키는 사회비판 문학도인 나에게는 애당초 반동이란 낙인을 찍어두고 외면했더랬다. 그는 처제를 사랑한 나머지 아내를 너무나 학대하여 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시인 사토 하루오(佐藤春夫)가 아내를 양도하라고 요구, 둘은 그렇게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다니자키의 심경에 변화가 생겨 약속을 파기해 버리자 사토 시인은 폐인이 되어 둘은 절교한다. 만 9년 후에 다니자키는 다시 변심하여 아내를 정식으로 사토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다른 여인에게 빠져들었다. '아내 양도사건'으로 알려진 이 이야기가 소설이 아닌 실제이며 그 주인공이 다니자키인지라 나 같은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기에 이런 작가는 아예 읽을 가치조차 없다고 치지도외해 왔던 터였다. 그런데 감방 신세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지라 영치해 준 그의 소설을 어쩔 수 없이 슬금슬금 읽다가 푹 빠져들고 말았다.

출세작 『문신(刺青)』은 짤막한 소품으로 에도(江戸)시대가 배경이다. 풍속화가 출신의 문신사 세이키치(清吉)는 당대 최고의 명성을 지니고 있어 누구나 그의 바늘에 찔려 자신의 몸에 문신이 새겨지기를 바랄 지경이었다. 세이키치는 문신에 몰두하면서 상대가 바늘에 찔린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미묘한 쾌감을 느낀다.

예술가답게 그는 상거래로서의 문신이 아닌 진정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피부에 자기 혼을 새겨 넣고자 그 대상을 물색 중이었는데, 마침 그 상대가 나타난다. 가마의 발(簾) 뒤에 새하얗게 드러난 한 소녀의 보드라운 발을 보는 순간 "이 발을 가진 여자야말로 그가 영원토록 찾아 헤매다 지친 여자 중의 여자일 것"이라 확신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그는 그녀에게 폭군 주왕(紂王)의 총희(寵姬)인 말희(末喜)의 새디즘을 그린 두루마리 그림 〈비료〉를 보여 준다. 젊은 여인이 벚나무 가지에 몸을 기대고 섰는데, 그녀의 발아래로는 남자들의 시신이 주욱 널브러져 있다. 그림을 본 소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본성인 말희를 닮은, 뭇 남성을 자기 쾌락의 비료로 쓰고픈 새디즘이 작동된다. 이를 눈치 챈 세이키치는 그녀를 마취시켜 소망했던 화폭(그녀의 피부)에다 작품(암거미)를 완성해 나간다. 문신은 끝난 뒤 온탕에 드나들며 피부 수축으로 상처를 풀어줘야 하기에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기 마련이다. 세이키치는 문신을 완성시킨 뒤 마취에서 깨어나는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그 문신 때문에 "남자라는 남자는 모두 노예로 전락하여 너의 몸을 살찌우는 비료가 될 것이다"라고 일러준다. 보통 여자라면 부어오른 바늘 자국의 고통 때문에 혼미할 터인데 이 말이 떨어지자 그녀는 대뜸 "당신이 제일 먼저 내 몸을 살찌우는 비료가 되었어요"라고 스승을 유혹하는 대목으로 소설은 끝난다.

이 작품을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 읽었다면 팽개쳤을 것이다. '유미주의 따위가!'라고 개탄했을 터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추운 겨울 감방 안에서 얼어터진 발가락을 바늘로 찔러 시커먼 죽은피를 짜내면서 읽었을 때 왜 그렇게도 내 영혼이 평온한 위안을 받았던가. 혹 레닌이 혁명을 외치면서 베토벤의 음악에서 위안을 받았던 이치와 같은 이치일까?

어림없는 소리다. 내가 레닌이 아니듯이 다니자키도 베토벤이 아니다. 적어도 베토벤에게는 역사와 민족에 대한 고뇌가 있지 않았던가. 음악 애호가들조차도 그가 얼마나 민중을 사랑하며 오로지 민중을 위로하며 침

략자를 증오하고 평화를 추구했던 음악가였던가를 제켜두기 일쑤다. 이에 비하면 다니자키는 그냥 여성 사냥꾼일 뿐이다. 그의 필생의 고민은 여자와 놀아나는 것이었지 않는가. 그처럼 철저히 일생을 아름다운 여자 탐구에 바친 작가도 흔치 않을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내 성욕이 발동한 탓일까. 그런 열악한 조건 아래서도 성욕은 분명 있었지만 이 소설이 준 위안은 그런 건 아니었다.

비인간적인 시대 속에서 생존조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황, 거기에는 어떤 사소한 미학적인 편린도 끼어들 틈새가 없었다. 누군가는 감방에서 꽃이나 잡초 혹은 쥐나 거미를 길렀다고도 했지만 적어도 징역 초기에는 어림없는 소리다. 형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의 안정과 그 속에서의 일상성이 자리 잡을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미학을 연상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없는 상태에서 삭막해진 내 영혼에게 『문신』은 그간 억눌러 두었던 미학을 되찾아준 격이었다. 아름다움이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닫는 계기가 된 셈이다.

그렇다고 유미주의적 작품이면 뭐나 이런 기능이 있을까. 그렇진 않았다. 참고로 말하면 감방에서 김동인의 유미주의적 소설을 몇 편 읽었는데 전혀 감동도 구원 의식도 느끼지 못했을 정도가 아니라 싱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이호석이나 이태준의 『오몽녀(五夢女)』 같은 소설이라면 위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고통 속에서 유미주의의 가치를 체험한 게 나로서는 신기하기만 하다. 참여-사실주의 일변도에 치중했던 나로서는 오히려 그런 고통을 통하여 문학예술의 심오한 세계, 진실로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 말은 그 후 내가 유미주의 미학관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는 건 아니다. 비판적 예술작품도 미학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체득한 셈이다.

덧붙이면 그로부터 만 26년 후인 2000년 천운영의 『바늘』(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같은 제목의 소설집, 창작과 비평, 2001)을 읽고 홀연히 『문신사』를 떠올렸다. 그리고 한강의 『몽골반점』 같은 아름다움도 바로 이런 예에 속한다고 추가하고 싶다.

유미주의가 반드시 감옥 안에서만 작동되는 특수 감각이 아니라 일상생활 어디서 언제나 작동되는 소중한 인간의 미학적 기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에는 구원의 힘이 존재한다. 그러고 보니 은근히 비난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도 내 무지의 소치임이 드러나고야 마는 것 같다. 비극이든 카타르시스든 유미주의든 미학적 형상화만 잘되면 누구나 감동하며, 그것 자체가 곧 영혼의 구원에 기여한다는 이 빤한 진리를 온갖 풍상을 겪고서야 알게 되다니!

7. 진달래 활짝 피다

감방에서는 겨울과 여름은 길고 봄과 가을은 짧다. 춥거나 덥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독재 권력이 '땡깡'을 부려도 시간은 흘러 추위가 풀리고 4월이 되자 온 구치소는 축제를 맞은 분위기로 변했다. 진달래가 활짝 폈기 때문이다.

내가 구속됐던 그 삼엄한 겨울에 피신 중이었던 김지하가 무슨 재주로 영치금을 넣어줘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잡혀와 나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 바로 4·3 긴급조치 3호 위반자들과 함께였다. 유홍준(미술평론가, 명지대 교수)이 바로 내 옆방에 들어오더니 이어 강진 출신의 윤한봉(민주화 운동가), 일본인 하야가와 요시하루(早川嘉春) 등이 나와 같은 5사 하층으로 들어왔고, 앞 뒷동에도 낯익은 얼굴들이 꽉 들어차 서대문 구치소는 광복 이후 정치범이 가장 북적대는 때를 맞았다. 5동의 내 방과 거의 마주보고 있던 3동에는 인혁당의 서도원이 들어와, 자주 통방을 하면서 계속 안부를 확인했다. 그들은 우리의 빨간 딱지와는 달리 노란 걸 달았기에 '진달래'로 호칭했다. 온 구치소가 진달래 천지였다.

이때 같은 5사에는 방동규도 있었다. 문단에서는 단연 황구라(황석영) 판이었는데, 재야의 구라는 방동규였다. 그는 고교 시절부터 주먹으로 날렸던 미남에 몸집이 튼실한 문제아였는데, 아버지가 백기완에게 아들 버릇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백기완이 그에게 '너 쌈 잘 하니'라고 물으니 한꺼번에 너덧 명은 문제없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귀싸대기를 갈기고는 "이눔아, 기껏 그런 조무래기들을 패대는 게 힘자랑이냐! 너 같은 녀석이 패대기쳐야 할 상대는 따로 있어!"라는 일갈로 대오 각성시켜 정작 싸울 상대가 누구인가를 일깨워 주었다는 설이 있다.

저 당송팔대가의 하나인 증공(曾鞏)이 천하장사 항우를 일러 "영웅본학만인적(英雄本學萬人敵, 영웅은 본래 만인을 대적하는 법을 배운다)"(『虞美人草』)이라는 명 구절을 상기시키는 멋진 장면이다. 이후 방동규는 백기완 사단에서 열심이었으나, 밥벌이 때문에 서독 광부 파견 1기생으로 나갔다. 돈을 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은 그는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동물사회학을 청강한 뒤 조용히 귀국, 명동의 한 골목에다 양장점을 차렸다. 미남에다 건장한 체격, 거기다가 소르본 출신이라니까 뭇 숙녀들이 운집하여 엄청나게 돈을 모으는 재미에 주변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숙녀들의 예방에 묻혀 재미가 쏠쏠했던 그의 은밀한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문학평론가 구중서였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 출신인 그는 고향의 풍광을 자랑하며 작가 신상웅, 등단하기 직전의 김지하, 서울대 철학과의 기인으로 『청맥』 편집으로 통혁당 때 혼쭐이 났던 시인 주성윤, 평론가 백승철, 그리고 나를 초대하여 곤지암 강변에서 천렵으로 한 나절을 즐기고 상경, 헤어진 뒤 몇몇(구중서, 신상웅, 김지하, 나)이 남아 명동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구중서가 한 미남을 맞닥뜨리더니 "어, 너 언제 왔어?" 하고 물었고, 그는 곤혹스러운 듯 어물거리더니 "나, 여기서 가게 해. 쉬었다가!" 해서 들어가 보니 멋진 양장점이었고, 의자에는 아름다운 숙녀들이 디자인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방 배추(그의 별명)는 고객들에게 나중에 들려달라고 내보내더니 얼른 중국집에다 각종 요리와 술을 주문했다. 구중서가 우리 일행을 소개했고, 그는 촌각이 아깝다는 듯이 서독에서의 광부 체험부터 파리 풍경 등등으로 썰을 풀었다. 그의 '썰'에 우리는 웃기에 바빴는데, 구라라면 뒤지지 않는 김지하는 대뜸 그의 추임새부터 말꼬리를 잡아 자신의 썰을 풀어대며 제법 말상대가 되자 "형님, 형님이 배추니까 나는 동생으로 상추로 합시다" 하며 궁합을 맞춰버렸다. 아마 밤이 깊어서야 우리는 헤어졌을 것이다. 방 배추는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우리만 알고 자주 들리라고 했다. 우리는 그 당부를 지켜 전혀 소문을 안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한량 기질이 도져서 스스로 백기완을 비롯한 여럿에게 연락, 거의 매일 양장점이 술판으로 이어지자 숙녀들이 다 발길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다시 빈털터리 처지에서 최전방 산악지대에다 엄청난 면적의 야산 개발권을 얻어 목장을 하게 되었다며 우리를 초청했다. 버스도 드문 그곳엘 찾아 갔더니 산 입구에서 해가 저물어 야밤에 산길을 더듬어 "방배추"라고 고함을 질래대면서 찾아갔다. 명산대찰이 서기에 적합한 야산중의 심산이었다. 거기서 우리가 갖고 간 술과 각종 간식을 다 털어먹으며 밤을 샌 후 헤어진 게 나와는 마지막 만남이었다가 서대문 호텔에서 대면하게 된 것이었다. 목장 일을 돕는 경상도 총각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북에서 내려오는 삐라를 주워 열심히 읽더라는 것이다. 그걸 소지만 해도 불법이었기에 모아서 다 태워버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 총각이 설날 귀향해서 벗들에게 그 내용을 자랑 삼아 북쪽 이야길 하니까 신고를 당해 연행, 어디서 들었느냐니까 방 배추를 지목하여 졸지에 연행, 구속당한 처치였다. 대질심문을 요청해 내가 언제 그랬냐니까 쳐다보기는커녕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조사관이 그 총각에게 그럼 누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다그치니 고개를 푹 숙인 채 팔로 불쑥 방 배추를 가리켰다는 것이다. 이내 풀려나긴 했으나 억울함으로 따지면 나보다 더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8. 재판, 그리고 석방 후 으악새 모임

문인 간첩단 사건은 언론 방송들이 방정을 떨었던 것에서 날이 갈수록 점점 빛이 바래져 갔다. 더구나 우리 다섯보다 더 『한양』지와 관계가 깊었던 문인들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재판은 점점 희극처럼 변해갔다. 특히 구상 시인, 조연현 평론가의 증언은 분수령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구상 시인의 증언은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감방 안으로 그가 증인으로 못 나올 것 같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우리들은 서운하게 여기며 영감님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어느 재판 땐가 느닷없이 판사석으로 메모지가 전해졌다. 바빠서 증인으로 오기 어려운데 지금 시간이 나서 왔으니 당장 법정 증인석에 세워주길 바란다는 요지였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자신이 증인으로 출두한다면 온갖 반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 안 나간다고 소문을 내고는 불쑥 후배 문인들을 위하여 등장한 것이었다. 이 사려 깊은 시인은 증인석에서 "여기 앉은 이 사람들 보다 내가 『한양』지 사장(김기심 발행인과 그는 동향의 친구)이나 편집장과는 훨씬 더 가깝다"고 잘라 말하며, 무죄를 강변해 주었다. 조연현은 나의 등단 은사로 가까우면서도 문학관에서는 너무나 달랐는데, 매우 단호하게 자신과 『한양』지와의 친근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의 무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내 개인적으로는 별로 가깝지 않았던 작가 손소희 역시 단호하게 『한양』지의 발행인이나 편집장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언명해 주었다. 나의 대학 은사 백철은 일제하에서 카프 사건으로 투옥 경험이 있는 데다, 한국전쟁 전후해서도 온갖 풍상을 겪었기에 무척 긴장된

표정으로 어물대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곤란한 대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여 우리를 긴장시켰으나 결정적인 쟁점에서는 분명히 부인해 주었다.

1972년부터 안양교도소에 갇혀 있던 마당발 정치인 김상현도 증인으로 등장했다. 기결수라 죄수복을 단정하게 입은 당찬 모습으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부축하자 강하게 뿌리치며 혼자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다섯 피고들에게 차례로 다 고생한다며 악수를 했다. 증인이 이렇게 당당한 건 처음 봤다.

그는 『재일한국인』(어문각)이란 육중한 연구서를 출간하여 대통령 박정희까지 감동시켰다. 재일동포 문제들의 실상을 샅샅이 밝힌 이 저서는 가히 어느 학자도 엄두를 못 낼 정도의 현장 감각과 자료를 담아낸 저서로 '놀고먹는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언론계를 향하여 국회의장 이효상은 이 책을 들어 이런 저술을 남긴 김상현 의원 같은 분들도 있다며 반론의 자료로 삼았다. 박정희는 경제기획원 장관 김학렬로 하여금 이 책 5,000권 값 600만 원을 지불토록 했고, 김상현은 그 돈을 밑천으로 윤형두(범우사 회장)에게 잡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한 게 월간 『다리』지였다. 창간 때 주간은 평론가 구중서였고, 그가 가톨릭에서 월간 『창조』를 창간하자 그리로 옮겨간 뒤에 내가 후임으로 갔다. 이래서 1970년대 초기의 박 정권 비판 잡지의 트리오였던 게 함석헌의 『씨알의 소리』, 『다리』, 『창조』가 되었다. 이 잡지들은 끊임없는 필화와 직간접적인 탄압에 시달렸다. 『다리』지의 권두언(김상현 명의)이 『아사히신문』에도 소개되는 등 당시 일본 언론은 무척 진보적이었다. 김상현이 나에게 일본에 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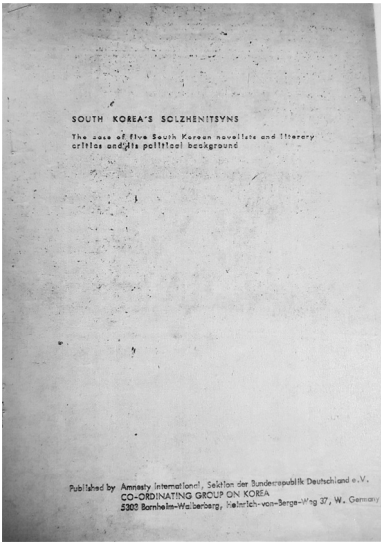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푹 쉬고 오라는 선심을 쓴 건 1972년 1월이었다. 나 같은 요시찰 인물이 여권을 내려면 3급 이상 비선출직 공직자의 보증인을 둘 이상 내세워야 했는데, 나를 하루아침에 국회의원 수행비서로 등록시켜 신원조회도 없이 며칠 만에 여권과 비자를 다 얻었다.

김상현과 함께 일본 여행 중 내가 소개해서 『한양』지의 편집장과 호텔에서 만나 축사도 구두로 불러주곤 했었다. 더구나 그는 일본 문제의 전문가라 김기심이나 『한양』이 조총련이 아니라 민단 소속임을 분명히 했고 충분히 재판부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밖에도 남파 전향 간첩을 비롯해 여러 증인이 나왔는데,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한양』지 편집장 김인재의 고향인 남해에서 상경한 모 농민이었다. 검찰 측 증인이라 우리는 무슨 거짓말을 하려나 바짝 긴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김인재가 6·25 때 '빨갱이'로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등 만행을 저질렀지요?라고 묻자, 그는 서슴없이 "아입니더. 그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않았심더. 그는 아주 얌전하고 착했심더"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렸다. 당황한 검찰은 "그럼 이 조서에 왜 날인을 했느냐?"니까 "보안대에서 와서 찍어라 캐서 찍은 겁니더"라고 해서 온 법정은 와르르 웃음바다가 되어버렸다. 판사는 얼른 그에게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자, "그냥 가면 됩니꺼?"라고 물어 된다고 하니 문을 열고 순순히 나가더니 이내 바로 되돌아왔다. 판사가 왜 들어왔느냐니까 "차비를 준다고 캤는데 어디서 줍니꺼?"라고 해서 또 한 바탕 마음 푹 놓고 웃었지만 판사도 웃음을 제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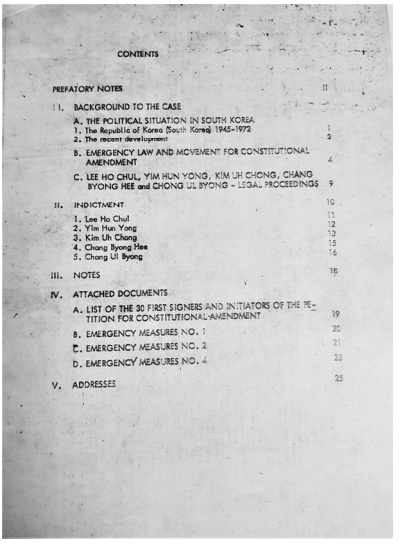
이쯤 되니 재판은 희극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양』지에 글을 많이 쓴



SOUTH KOREA'S SOLZHENITSYNS

The case of five South Korean novelists and literary critics and its political background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Sekti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V.
CO-ORDINATING GROUP ON KOREA
5303 Bornheim-Walberberg, Heinrich-von-Berge-Weg 37, W. Germany



CONTENTS

PREFATORY NOTES II

I. BACKGROUND TO THE CASE
A.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1.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1945-1972 1
2. The recent development 2
B. EMERGENCY LAW AND MOVE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4
C. LEE HO CHUL, YIM HUN YONG, KIM UH CHONG, CHANG BYONG HEE and CHONG UL BYONG - LEGAL PROCEEDINGS 9

II. INDICTMENT 10
1. Lee Ho Chul 11
2. Yim Hun Yong 12
3. Kim Uh Chong 13
4. Chang Byong Hee 15
5. Chong Ul Byong 16

III. NOTES 16

IV. ATTACHED DOCUMENTS
A. LIST OF THE 30 FIRST SIGNERS AND INITIATORS OF THE PETITION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19
B. EMERGENCY MEASURES NO. 1 20
C. EMERGENCY MEASURES NO. 2 21
D. EMERGENCY MEASURES NO. 4 23

V. ADDRESSES 25

국제앰네스티가 낸 석방운동 연문자료집『남한의 솔제니친』표지와 목차.

순서도 아니고, 그들과 자주 만난 친분관계의 깊이로 따진 것도 아니며, 돈과 선물을 많이 받은 서열도 아닌 그야말로 무작위로 뽑힌 다섯 명이었다.

여론은 단연 우리 편이었다. 문학인 297명의 진정서 제출, 국제앰네스티의『남한의 솔제니친』이란 책자 발간과 세계적인 석방운동, 일본 문인들의 발 빠른 석방운동과 서명 작업 등등으로 국제적인 관심사로 변해버린 '문인 간첩단 시간'은 정작 한국 사회에서도 '간첩'이란 게 어마어마한 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작될 수도 있구나 하는 인식의 변모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소책자를 만들어 대량 배포했는데, 오무라 마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오 와세다대학 교수가 나를 만났던 기억을 되살리며 지원을 호소해 주었다. 일본에서는 진보적인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던 나카다이라 겐키치 변호사가 재판 때마다 거의 방청하여 그 정황을 널리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교과서 바로잡기부터 재일한국교민의 인권문제와 북한 돕기 등에 관여해 온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감방의 밤은 왁자지껄하다. 그건 느끼기에 따라 시장바닥 같기도 하지만 온갖 벌레와 동물들의 대화로 시끌시끌한 여름 밤 숲속 같기도 하다. 그 소리들은 불협화음이지만 재밌다.

"야, 이 도둑놈들아, 욕 좀 하자아아아" 하면 바로 "네에미 X이다"가 나오고 이어 "네에미 X이 X이다"에 꼬리를 물고 "네에미 X이 X이 X이다"라며 'X'자가 한 자씩 이자를 붙여 나가다가 "X방 ○○○ 깨져라" 하면 "ㅁㅁㅁ 뒷문 가서 깨져라" 소리 지른다. 깨져라는 죽으라는 것, 뒷문은 사형장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깨지기를 바라진 않는 게 감방의 정서다. "야 임마, 3대 째 징역 살아라", "X방, 원숭이 폭 삶아 보낸다"라고도 했다. 원숭이는 일제 때부터 끔찍하게 재수 없는 상징으로 써온 저주로 그걸 삶기까지 했으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 하고 목 놓아 부르는 소리가 며칠 째 계속 나기도 했다. 어느 날에는 "아, 집에 가고 싶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어이 X방 000, 잘 자. △△△(여자 이름) 참 안 됐어. 그 애 십년 후에 애나 낳을 수 있을까?"라는 근심도 터져 나왔다. 어떤 노처녀가 개나리(긴급조치 위반 상징)로 잡혀 온 걸 동정하는 말에, "야, 걱정 마. 그땐 국민소득 1,500달러는 될 테니까 자식 없어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될 테지"라는 처

방전도 나왔다. 이어 누군가 "잘 있거라, 나는 내일 목포 간다"라고 소리 지르니 얼른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 목포행 완행열차"라는 구성진 〈대전 발 0시 50분〉(원 제목은 〈대전 브루스〉)을 불러준다. 실제로 서울역을 출발, 대전에서 0시 50분에 대전으로 출발했던 제33열차는 1959년에 생겼으나 이듬해에 시간이 바뀌어 사라졌으나 노래는 그대로 남았다.

8차에 걸친 지루하고 따분한 심리가 끝나고 6월 28일 금요일이 제1심 판결 날이었다. 밖에서는 아예 다 풀려날 줄 알고 리영희 선생은 희대의 명저 『전환시대의 논리』를 출간하고서 그 출판기념회를 그날 저녁으로 잡았다. 우리가 풀려나면 다 참석하기 쉽게 하려는 배려였다. 그런데 기대를 저버린 채 정을병 혼자만 무죄였고, 김우종과 나는 집행유예, 이호철과 장백일은 실형이 선고되었다.

풀려나도 개운찮은 건 이호철, 장백일의 실형(둘 다 2심에서 석방)과, 결국 그간 지녔던 사회적인 모든 직책과 활동이 깡그리 백지화 되어버린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두 복직도 복권도 안 된 채 요시찰 인물로 살아야만 했다. '관제(官製) 빨갱이'란 단어가 얼마나 허황된 독재 권력의 산물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자, 그 피해로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야만 되었던가의 본보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 내가 정식으로 복권된 것은 1998년이었다.

바로 그해 여름 즉 1974년 8·15 경축식은 육영수의 저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호철은 감방 안에서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흥분하며 석방을 고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둘은 예상대로 우리보다 3개월 더 옥살이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한 뒤에야 2심에서 석방됐다.

그해 연말, 정확히는 12월 9일에 유신반대파였던 정치인 3인방인 김상현, 조연하, 조윤형이 안양 교도소에서 출감했다. 갓 출옥한 김상현 환영을 겸한 송년 모임에서 이 풍진 세상을 소일하고자 으악새 모임이 만들어졌다. 한승헌, 장을병, 리영희, 이상두, 윤현, 김상현, 윤형두에다 나중 김중배, 한완상이 추가됐고 나는 최연소 회원으로 합세했다. 유신통치 시절의 유일한 여흥이었던 이 모임의 「으악새 선언」은 한승헌이 작성했는데 실로 명문이다.

위: 출소 직후 한승헌 변호사와 함께
아래: 출소 뒤 나카다이라 겐키치 변호사를 집으로 초청했을 때. 앞줄 왼쪽부터 어머니와 두 살된 아들(민)을 안은 아내(고경숙), 나카다이라 변호사와 그 동행자, 김우종. 뒷줄 정을병, 임헌영, 미상.

오늘 우리는 '체'에서 벗어나기로 한다.

허울 좋은 도덕의 멍에 때문에, 처세와 체면 때문에 '나'를 속박해 온 '체'를 벗어 던지기로 한다. 자신을 학대해 온 1년을 묻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산하기로 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거짓생활에 이끌려 다녔던가. 우리의 고뇌와 피로를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 아니던가. 화려한 위장보다는 처참하더라도 진실의 목소리를 우리는 그리워한다. 남을 속이는 기만보다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불가한 것인가를 새삼 느낀다. ……

이에 우리는 겉으로 그럴듯하면서도 내심으로 외롭고 불행했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아가 그런 위로라도 없이는 이 해를 잊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가슴을 마주 대하는 공동의 술상 앞에 나와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전원의 뜻으로 선포한다.

1. 오늘 이 자리에서는 누구나 솔직해야 한다. 솔직할까 말까 망설이는 자는 천추의 한을 면치 못할 것이다.

1. 오늘 이 자리는 저질을 우대하는 자리다. 인간의 태어남이 곧 저질의 부산물인 고로 저질을 욕하는 자야말로, 태어남을 욕하는 자니라.

1.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한다.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잊어버리라. 내일 내일 하지만 언제 내일이라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어 봤나. 기다렸던 내일이란 것도 당하고 보면 항상 오늘이었지 않은가.

1. 오늘 우리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기를 맹세한다. 사람에게서 기분을 빼놓으면 주민등록증밖에 남을 것이 없다. 괜히 호마이카질(손질한다는 뜻)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 발산에 일로매진하기를 다짐한다.

1. 만일 위와 같은 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거나 그로 인해서 이 자리의 무드에 금이 갈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회자가 본의 아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긴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아무런 벌도 받는 일이 없다.

주로 김상현이 스폰서를 모셔 오거나 자신이 지불하면서 맘껏 즐겼는데, 한정식, 양식, 일식집 고급부터 싸구려까지 두루 섭렵, 전전했다. 온갖 음담패설과 욕설이 담긴 속요들을 맘대로 불렀으나 춤을 추거나 여성을 들이진 않았다. 리영희가 여성이 동석하자 "낡은 부르주아" 운운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비토를 놓은 결과였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뭇 여성 펜이 많았던 한승헌이 자기 펜들만 초청하여 함께 하기도 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발광을 했을까.

익살과 와이당(猥談의 일어)에 일가견을 가졌던 김상현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장군이 처했던 매독의 비극을 설파했다.

국제 매독이라 고칠 수 없는 단계라서 그는 국내 명 의원은 물론 이고 이웃나라까지 원정을 갔으나 한결같이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 죽게 됩니다"라는 진단이었다. 차마 그걸 잘라내기가 아쉬웠던 장군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을지로 6가 허름한 골목의 중국인 명 한의를 찾아갔다. 늙은 한의는 안경 너머로 물끄러미 그 흉물을 쳐다보더니 "다른 병원에도 가 보셨습니까?" 정중히 물었고 "예, 다 다녀봤습니다"고 답하니 "뭐랍디까?"고 물었다. 장군은 근심어린 표정으로 답했다.

"다들 똑 같이 이걸 잘라내야 한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의는

"미친놈들! 자르긴 왜 잘라!" 했다. 이에 용기백배한 장군은

"그렇지요? 안 잘라도 되지요?" 하자 한의는 다시 "미친놈들!"을 서너 번 반복하기에 장군은 아예 희색을 띄우며,

"예, 그렇지요! 안 잘라도 되지요?"라고 용기 있게 답했다. 지그시 쳐다보던 그 명의는 다시

"미친 놈들! 그냥 둬도 뚝 떨어질 걸!"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이걸 1970년대의 유신통치 아래서 최상급 와이당이라고 내가 감히 평하는 것은 바로 그 한의사가 '역사적인 필연성'을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그냥 둬도 떨어질 건 떨어지고 만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모든 민주투사들과 학자들은 박정희가 죽어야만 유신헌법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10·26 이후에 다들 망할 걸 알았다고들 하지만 내가 감히 증언한다. 이미 민주화 운동권조차도 그 군부독재 체제가 쉬 붕괴할 것이란 기대는 갖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 필연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자는 건 아니니 오해 없기 바란다. 결국 그는 이로부터 5년 뒤인 1979년 10월 26에 죽음으로써 유신 통치의 막은 내렸다. 그냥 둬도 뚝 떨어진 것이다. 그러고도 사건 44년 뒤인 2018년 6월에야 재심에서 무죄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형사적인 배상도 끝났다. 그러나 내 청춘을 빼앗겼던 민사적 배상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세칭 '문인간첩단 사건'은 산적한 간첩조작사건의 목록 중 비정치적인 것이라 대중적인 선동력이 강했다. 이승만 치하에서 첫 간첩 조작이었던 '국회프락치 사건'에 이어 '조봉암 조작사건'을 거쳤는데, 박정희 치하에서는 '인혁당 사건'이 대중들에게 가장 강력한 호소력으로 작용했고, 유신통치 아래서는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간첩도 만들어 내는 독재'라는 인식을 널리 퍼트리게 작동됐다. 이런 조작술은 선거 때마다 '북풍'을 이용한 수구세력들의 기교가 다양화되어 널리 활용하므로 써 각계각층에서 언제라도 필요하면 '간첩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모든 조작사건은 다 정치권력이 날조해 낸 결과였다. 민주화와 인권의 첫 걸음은 이런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세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을 바꾸는 일인데, 정작 그 조작 전문가 집단이 민주화되자 사회의 그늘에서 여전히 '간첩'이 아닌 '여론' 조작에 나서는 모양새가 참 우려스럽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조작했던 사건들이 진짜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진정한 민주화란 그 날조범들이 다시는 어떤 '조작'도 불가능하도록 사회를 정화하는 노력일 것이다.